



## 동방 경제 포럼 소식

동방경제포럼조직위원회는 스포츠행사일정을 공표했다. 9월2일과 3일에 아약스 만에서 포럼의 참가자들을 위한 요트경주가 진행되며 9월3일에 행사의 모든 참가자들은 극동기업게임즈의 테두리에서 7개 종목의 스포츠경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.

《타스 통신》

'로스콩그레스'재단 G. 브리소프 부회장은 9월2일에 동방경제포럼의 테두리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될 시베리아호랑이와 아무르표범의 보호를 위한 자선질주에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할 것임을 밝혔다.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자연보호활동, 생태학 및 운수담당 S. 이바노프 특별대표가 질주출발을 시작할 것이다.

《타스 통신》

연해주 V. 미클루웬스키 주지사는 연해주가 동방경제포럼에서 투자에 관한 협정을 50 개저도 서명할 예정임을 밝혔다. 프로젝트들은 항만인프라현대화, 석탄 및 가스터미널, 물류단지, 생선가공공장, 관광대상 등의 건축 등을 예정이다.

키예비치국제공항은 동방경제포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기간에 강화된 운영형태를 도입하여 추가적인 인원이 분배되며 특수장비와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다. 터미널에는 참가자들의 등록 카운터와 등록장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제반 필요한 내비게이션이 배치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사업이 이루어져 있다.

《리아노보스티》

캄차카지방 V. 일류힌주지사는 캄차카당국자들이 동방경제포럼에서 프로젝트로서 소개할 새로운 양계장이 그 지역이 수입되는 냉장육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급으로 변전할 수 있게 할 것임을 밝혔다. 프로젝트투자는 17억루블이 되며 제품생산은 2018 년도에 시작할 예정이다.

《IA REGNUM 통신》

러시아연방자연부원 및 생태부는 포럼에서 «보호되는 극동»이란 독특한 인터랙티브 전시를 소개할 것이다. 러시아연방자연부원 및 생태S. 돈스코이장관은 전시회가 생태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프로젝트 20개 이상을 포함한다고 밝혔다. 전시회 방문객들은 다가오는 생태의 해의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, 극동국립공원들의 관광 관련 실력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.

《토르고보-프로미של렌니에 베도모스티M》

캄카카에는 자유항의 첫 3개의 잠재적인 레지던트회사가 선정되었다. 캄차카지방 V. 일류힌주지사는 가까운 앞날에 그들과 협정이 체결될 예정임을 밝혔다. 그것들이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츠키시 생선가공공장, 화물터미널과 호텔건축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다.

《캄차카반도》